조달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11. 4.(수)

조달청, 복잡한 외자구매 간소화해 수요기관 부담 낮춰

- 규격검토 절차 개선 등으로 외자구매 소요일수 10일 이상 단축
- '27년 기타기관 조달수수료 5% 할인을 추진하고 사전컨설팅 지원 확대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수요기관의 외자구매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중앙조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**계약절차 간소화, 규격검토 개선,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 외자구매 개선방안을**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외자구매란 슈퍼컴퓨터, 대형 헬기 등 국내 생산·공급이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, **국제입찰과 계약, 운송·통관** 등 복잡한 절차와 **전문성이 요구**된다.

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요기관은 외자물품을 **직접 구매**하고 있으며,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건수도 2021년 1,280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약 **63% 감소**했다. 특히 공공기관·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기관의 외자구매 실적은 2021년 334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약 **79% 감소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전체기관 : (21년)1,280건 → (22년)962건 → (23년)906건 →(24년)741건 →(25년)477건

* 기타기관 : (21년)334건 → (22년)218건 → (23년)205건 →(24년)141건 →(25년)71건

↳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사립학교, 연구기관 등(「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」)

이에 조달청은 **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외자구매를 전문적인 중앙조달 서비스로 유도**하기 위해 이용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,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매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이다.

첫째, **장기간 소요되는 계약절차를 개선**하여, 조달요청 이후 실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를 **10일 이상 단축**('25년 평균 86일 소요)한다. 이를 위해 조달요청서 접수 이후 규격검토, 입찰평가, 계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**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**을 줄여나갈 계획이다.

둘째, **경쟁성이 명확한 품목**은 복수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하는 **규격검토를 간소화**할 계획이다. 우선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형성된 **전자 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**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**소요일수가 7일 가량 추가 단축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내자·외자구매 모두 '사전규격공개' 절차는 동일. 단, 외자구매는 10만불 이상 물품은 제조사를 통해 '규격적합조사표'를 확인하여 경쟁이 가능한 규격인지 추가 검증

셋째, 공공기관·사립학교·연구기관 등 **기타기관의 조달수수료를 2027년부터 5% 할인**하여 조달비용을 경감할 예정이다.

이번 조치는 수수료 부담으로 자체조달을 하는 기관에게 **중앙조달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된다. 수수료 할인은 관계부처 협의와 「조달수수료 고시」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.

* 수수료율(%, $) : 1.2→1.14(1백만)/0.9→0.855(5백만)/0.7→0.665(1천만)/0.4→0.38(1천만↑)

넷째, **외자구매 사전컨설팅을 확대**한다. 대학·연구기관 등 자체 외자장비 구매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달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확대하고, 필요시 비대면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.

장의순 공공물자국장은 "외자구매에 필요한 **전문적인 절차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은 줄이는 것**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"이라며, "계약절차와 규격검토를 효율화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을 확대를 통해 **수요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외자조달 서비스를 제공**하겠다."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공공물자국 해외물자과	책임자	과 장	조영상	(042-724-73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현	(042-724-731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